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2.429>

JCCT 2024-3-49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

Influencing Factors Stress in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홍희정*, 신복순**, 최성희***

Hee Jung Hong*, Bok Soon Shin**, Sung Hee Choi***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첫 임상실습을 앞둔 3학년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1월 10일 까지 간호대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스트레스(Pss),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GICC)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스트레스는 셀프리더십 ($r=-.29, p<.001$), 의사소통능력($r=-.40, p<.0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는 성별, 학업 만족, 의사소통능력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33.7%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주요어 : 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stress before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surveyed on third-grade students who were about to undergo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December 22, 2023 to January 10, 2024, with a total of 191 nursing students.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Perceived stress scale(Pss), Self-leadership, and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GICC)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s,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1.0.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leadership($r=-.29, p<.001$)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r=-.40, p<.001$). In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stress levels of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were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gender, satisfaction with the department,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These variables explained 33.7% of the variance in pre-clinical stres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educational interventions that can help reduce stress before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Key words : Stress, Self-leadership,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

*정회원,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 (제1저자)
**정회원,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초빙교수 (참여저자)
***정회원,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1월 25일, 수정완료일: 2024년 2월 12일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25일

Received: January 25, 2024 / Revised: February 12, 2024
Accepted: February 25, 2024
***Corresponding Author: csh@mcu.ac.kr
Dept. of Nursing, Mokpo Catholic University, Korea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넘어 간호사로서 전문적 자아를 형성하고 의료인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시기이다[1]. 간호대학생들은 이론적 지식을 모두 습득하기 전에 임상실습을 통해 22학점 이상 학점을 이수[2]하고 실습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첫 임상실습은 학생들에게 실습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3].

간호대학생에게 있어서, 첫 임상실습은 3학년 1학기에 시작하여 3, 4학년까지 진행되며, 임상실습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한 간호지식, 기술, 태도를 임상현장에서 직접 습득하게 된다[1]. 간호대학생은 이론지식을 임상 실습에서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역할 수행의 모호함, 간호기술과 수행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4].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스트레스가 심해져 임상실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위축과 부담감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5]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첫 임상실습을 경험하게 되는 간호대학생은 임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낮은 환경, 대상자, 의료진, 보호자와의 대인관계에 대한 부담감[6], 지식 및 간호술기 부족 등으로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심리적 증상과 신체적 증상까지도 발생[7]한다. 그러므로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하는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를 확인한 연구가 부족하다.

임상실습은 우수한 간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며 실제 간호 상황에서 이론을 관찰하고 적용하며 스스로 탐구하는 경험으로 간호대학생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8, 9]. 하지만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갈등이 심화[10]되고 환자 간호와 간호사, 보호자, 동료, 타 부서 직원과 의사소통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이끌어내는 상황도 경험하게 된다. 이때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한 역량이 리더십이다. 다양한 리더십 중에 간호수행과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간호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의 리더십이 셀프리더십[11]이며, 자

기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율성이 강조된 리더십[12]이 필요하다. 다양한 리더십 중 간호학생이 조직 문화를 처음 접하는 임상실습 환경이 교육 현장이므로 셀프리더십의 역량이 요구되며,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13]. 따라서 셀프리더십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스스로에게 보상과 반성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14], 학습과 교육을 통해 발전될 수 있으며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1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셀프리더십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미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이 졸업시점에 의사소통 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에서 의사소통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15]. 간호현장에서 환자 간호는 간호사와 간호할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관계 과정이므로 간호사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돌봄 행위를 수행해야 효과적으로 간호문제를 해결[16]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교육 중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였고[17]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타 전문직과의 협력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18]이다. 선행연구[19]에서 셀프리더십이 높은 간호사가 대상자와 동료 간의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의사소통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결과가 있었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을 확인한 연구가 미흡하다.

간호대학생은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고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야 하며 임상실습에 대한 압박감, 시험,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3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한다[20]. 하지만 임상실습 전에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과 관련된 연구로는 스트레스 요인 분석[21], 임상실습 스

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22, 23],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24]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임상실습 전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의사소통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전에 느끼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J도 C대학교와 C도 B대학교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임의표출 하였다.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를 이용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위해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그리고 예측변수 9개를 투입하여 표본의 크기를 산출한 결과 166명이 요구되었다. 불충분한 자료 발생률을 고려하여 200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고, 불충

분한 자료를 제외한 191명을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재학생 중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제외 기준은 휴학자이다.

3. 연구 도구

1) 스트레스

본 연구는 Cohen, Kamarck와 Mermelstein[25]이 개발한 Perceived Stress Scale을 한국인에 맞게 Park과 Seo[26]가 번안한 한국판 Perceived Stress Scale(Pss)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역문항은 역환산하였고, 최저 0점에서 최고 40점의 총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과 Seo[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78$ 이었다.

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27]가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Kim[28]이 수정·보완하고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항목으로는 행동전략인 자기비판(3문항), 자기보상(3문항), 자기관찰(3문항), 리허설(3문항), 자기목표설정(3문항)의 5개 요인과 인지전략인 자기존중(3문항)의 1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의 범위에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이었다.

3)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에서는 Rubin[29]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에서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능력 구성 개념에 Heo[30]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수정 보완한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GICC]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 문항으로서 개인의 의사소통능력을 이루는 15가지 하부 구성 요소인 자기노출, 공감, 사회적 긴장 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 간과, 반응력, 잡음 통제력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이다. 개발 당시 Heo[30]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72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4.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J도 C대학교와 C도 B대학교 간호학과에 방문하여 해당 기관의 학과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진행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았다.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자료 수집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구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 되었고, 설문조사 방법은 자가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5.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를 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의 수준은 기술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각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 대상자들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기간 등 진행과정과 자료수집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과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 등을 포함하는 연구 관련 정보를 제공한 후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글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작성하게 하였고, 연구 참여 중에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참여자에게 약속하였고, 자료 보관은 책임 연구자의 연구실 내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사물함에 보관하였다. 참여 대

상자에게 연구 보고 종료 시점에 문서 파쇄기를 이용하여 폐기됨을 알렸고, 설문조사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결과, 성별은 여학생이 145명(75.9%)으로 남학생 46명(24.1%)보다 많았다. 평균연령은 23.7세로 나타났고 20-25세가 가장 많은 160명(83.8%)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54명(28.1%)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의 수는 1명의 형제가 있는 대상자가 가장 많은 115명(59.9%)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은 등록조차 하지 않은 대상자가 126명(65.8%)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만 하고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 대상자는 28명(14.7%),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대상자의 수는 37명(19.5%)으로 나타났다. 학점의 경우 3-3.5점이 77명(40.1%), 3.6-4.0의 수준의 학생이 44명(22.9%), 4.1 이상의 학점을 보인 학생이 27명(14.6%)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과 만족도는 보통 만족이 138명(73%)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 수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 수준은 Table 2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는 총 40점 만점에 평균 18.4(5.6)점이었다. 셀프리더십은 총 90점 만점에 평균 61.1(10.5)점을 나타냈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수준은 총 75점 만점에 평균 54.3(10.3)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의 수준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ress, Self-leadership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N=191)

Variable	Mean(SD)	Min	Max
Stress	18.4(5.6)	1.0	35.0
Self-leadership	61.1(10.5)	18.0	90.0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54.3(10.3)	27.0	75.0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차이

Table 1. Difference in Stress, Self-leadership,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ccording to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191)

Variables	Characteristics	N(%)	Stress		Self-leadership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Gender	Male	46(24.1)	16.1(5.6)	-3.16 (.002)	61.4(9.5)	0.25 (.800)	54.3(10.8)	0.20 (.842)
	Female	145(75.9)	19.0(5.4)		60.9(10.8)		53.9(10.9)	
Age (Year) average: 23.7	20-25	160(83.8)	18.0(5.8)	1.48 (.230)	61.0(10.8)	1.54 (.217)	54.6(10.9)	2.14 (.120)
	26-30	15(7.9)	19.7(3.8)		64.8(6.9)		52.9(11.6)	
	≥31	16(8.3)	19.9(4.3)		58.3(10.2)		48.9(7.6)	
Religion	Christianity	54(28.1)	18.0(5.0)	0.12 (.948)	62.1(12.6)	1.02 (.383)	53.7(9.9)	0.19 (.902)
	Catholic	19(9.9)	18.0(5.3)		63.9(11.7)		55.6(12.0)	
	Buddhism	4(2.1)	19.5(3.7)		60.5(9.9)		55.8(12.0)	
	etc.	114(59.9)	18.4(6.0)		60.0(9.2)		53.8(11.2)	
Siblings (Number of people)	0	18(9.4)	56.8(8.4)	0.85 (.493)	61.6(11.1)	0.39 (.817)	44.7(12.4)	1.18 (.321)
	1	115(59.9)	54.2(10.5)		61.1(11.3)		45.0(13.0)	
	2	39(20.3)	53.6(10.1)		59.9(8.9)		47.1(12.2)	
	3	14(7.3)	51.7(17.4)		63.6(7.1)		44.3(15.6)	
	≥4	5(3.1)	46.3(13.6)		58.3(11.5)		60.0(12.0)	
Circle activities	Very activities	37(19.5)	54.8(10.7)	1.19 (.308)	61.5(9.7)	0.32 (.730)	44.9(15.0)	0.26 (.775)
	Just register	28(14.7)	51.1(13.0)		62.0(9.0)		44.1(11.0)	
	Not registered	126(65.8)	54.3(10.2)		60.5(10.9)		45.9(12.5)	
Academic credit	≤3	43(22.4)	53.3(11.0)	0.19 (.904)	59.0(8.1)	1.78 (.152)	46.4(12.1)	1.24 (.296)
	3-3.5	77(40.1)	54.2(10.9)		60.5(10.8)		47.1(13.5)	
	3.6-4.0	44(22.9)	55.0(8.9)		61.8(10.9)		44.8(10.9)	
	≥4.1	27(14.6)	53.8(13.4)		64.7(12.1)		41.8(15.3)	
Satisfaction with the Department	Unsatisfied ^a	13(5.8)	57.8(11.3)	5.36 (.001)	63.6(13.1)	0.54 (.581)	46.2(13.0)	2.89 (.058)
	Moderate ^b	138(73.0)	54.8(10.5)		61.2(10.8)		44.4(13.2)	
	Satisfied ^c	40(21.2)	50.6(11.5)		60.0(8.9)		49.9(11.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 차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성별($t=-3.16, p=.002$), 학과 만족($F=5.3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나이, 종교, 형제 수, 서클활동여부, 학점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4. 대상자의 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스트레스는 셀프리더십($r=-.29, p<.001$), 의사소통능력($r=-.40, p<.001$)과 유의

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셀프리더십이 의사소통능력과 양의 상관관계($r=.6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스트레스와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elf-leadership and Stress in Subjects (N=191)

Variable	Stress	Self-leadership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r(p)	r(p)	r(p)
Stress	1		
Self-leadership	-.29 (<.001)	1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40 (<.001)	.61 (<.001)	1

5. 대상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학과 만족도와 더불어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성별은 더미 처리하였다. 분석 전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값이 0.91~1.00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 인자(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는 1.00~1.10로 10보다 크지 않아서 독립변수들 사이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6.69$ $p<.001$).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성별($\beta=0.16$), 학과 만족($\beta=-0.12$), 의사소통능력($\beta=-0.35$)이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고, 이는 전체변량의 33.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
Table 4. Influencing Factors for Stress

(N=191)

Variable	B	SE	β	t(p)
(Constant)	34.54	3.30		10.5(<.001)
Gender_Female	2.14	0.80	0.16	2.7(.008)
Satisfaction with the Department	-0.85	0.43	-0.12	-2.0(.049)
Self-leadership	0.02	0.04	0.04	0.5(.585)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0.19	0.04	-0.35	-4.6(<.001)
$R^2=.359$ Adjusted $R^2=.337$ $F=16.69$ $p<.001$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는 40점 만점의 평균 18.4±5.6점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평균 17.41±5.19점으로 보고[31]되어 본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대상에게 조사한 결과이지만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과 임상실습 과정 중으로 상황이 다르므로 연구한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임상실습 전 대상자의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Lee와 Kang[31]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4학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조사했으므로 3학년 임상실습 경험이 4학년에서 긍정적 경험으로 작용한 결과로 본 연구의 임상실습 전 3학년 대상자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Chu, Lee와 Kim[32] 연구에서 3학년 간호대학생이 1학년과 2학년의 '대인관계', '자기 자신'과 관련된 스트레스 정도보다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학년에 따른 맞춤형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겠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전 교육과정에서 스트레스 관리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셀프리더십이었다.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선행연구 결과[33]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셀프리더십이 힘든 과정이 있어도 자신을 통제하고 안정적이게 한다[34]고 보고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므로[35] 셀프리더십을 강화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므로 학년별 교과과정 중 2학년부턴 준비할 수 있도록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마지막 변수는 의사소통능력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의사소통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3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은 결과로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관련 요인이 제시되었다. Kim[37]은 급박한 의료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을 대하는 비교육적인 태도와 의료인의 일방적 의사소통은 임상실습 시 간호대학생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때 임상상황의 상호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의사소통능력의 교육과 적용을 통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셀프리더십이 의사소통능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4]에서 셀프리더십은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의 영향을 주었고 의사소통능력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의 영향을 주

었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은 대상자 및 동료들과의 복잡한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되기 전부터 학부과정 동안 임상실습을 통해 본인의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관리가 필요하다[38].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뮬레이션 실습 방법으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39]하여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겠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는 성별, 학과 만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과 만족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35, 36]와 일치하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대학생의 스트레스 원인으로 학업을 제시[35, 36]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반면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선행 연구결과[36]에서 성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게 보고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임상실습 전과 임상실습 과정에서 대상자의 여학생 비율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성별의 비율을 맞춰서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학과 만족도에 따라 스트레스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학과 만족도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집단이 만족한다는 집단보다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에게 진행된 선행연구[34]에서도 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스트레스의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추후 학과 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여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스트레스는 의사소통능력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의사소통능력이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Yang[4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의사소통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Yeom[41]의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확인할 수 없어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이 영향을 주는지 임상실습 전 후 실습 연구가 필요

하며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와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겠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의사소통능력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학과 만족, 의사소통능력 임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 시 학과 만족도 향상과 문제 해결 중심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전략을 포함하고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 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학과 만족과 의사소통능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성별을 고려하여 체계화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실습 전과 실습 후의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2학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적용 교과과정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J.J. Yang, "Nurses' Image perceived by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9, No. 1, pp.

- 64-72, June 2003.
- [2] Korea Institute of Nursing Education and Evaluation. 2022 first and second hal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evaluation university handbook. 2022.
- [3] H.R. Song, S.B. Park, Y.H. Kim, N.H. Kwon, and T.H. Kim, M.S. Gil, and M.S. Jeong,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xiety,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before first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academic conference*, Vol. 1, No. 12, 2018.
- [4] K.H. Kwak, S.O. Park, S.M. Oh, I.S. Seo, J.R. Lee, S.J. Park, and B.J. Park,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2, No. 3, pp. 11-21, September 2018.
- [5] H.S. Yun, and G.G. Kim,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By New Nurs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3, pp. 903-922, June 2016. UCI : G704-001586.2016.16.3. 047
- [6] J.E. Lee, and S.L. Kim,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1, No. 1, pp. 98-106, 2005.
- [7] Y.K. Yang, K.S. Han, M.H. Bae, and S.H.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2, No. 1, pp. 23-33, Mar 2014.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4.22.1.23>
- [8] N.S. Ha, M.S. Choi, and E.H.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Styles and Self-esteem,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1, No. 1, pp. 13-21, Mar 2005.
- [9] K.S. Park, Y.Y. Hwang, and E.H. Choi, "The Study of the Nursing Students' Live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at the Intensive Care Unit,"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15, No. 3, pp. 373-382, Sep 2013.
- [10] A.R. Yeo, H.J. Lee, and H.K. Jin, "Factors associated with customer orientation and nursing productivity,"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0, No. 3, pp. 167-175, 2014.
- [11] J.H. Lim, and M.Y. Choi, "The Influences of Self-leadership and Communication Skills on Character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23, No. 3, pp. 1383-1398, 2021.
- [12] C.C. Manz, and H.P. Sims, "Super-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 Dynamic*, Vol. 19, No. 5, pp. 18-35, Jan 1991.
- [13] E.H. Park, and R.H. Hwang, "Change i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of the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 pp. 593-601, Jan 2015.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593>
- [14] J.S. Lee,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0, pp. 253-260, Oct.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0.253>
- [15] S.H. Ko, and K.M. Kim, "An initial clinic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 Nurse*, Vol. 33, No. 2, pp. 59-72. 1994.
- [16] H.E. Peplau, *Interpersonal relations in nursing: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psychodynamic nursing*, New York: Springer Pub, 1991.
- [17] M.J. Yun, and J.H. Kyung,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8, No. 6, pp. 561-567. Nov 2022.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2.8.6.561>
- [18] W.A. Suliman, and J. Halabi, "Critical thinking, self-esteem, and state anxiety of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 27, No. 2, pp. 162-168. 2007. DOI: <https://doi.org/10.1016/j.nedt.2006.04.008>
- [19] S.H. Y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the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in Junior college in some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0, No. 3, pp. 376-390, 2001.
- [20] G.Y. Ko, S.O. Park, S.J. Park, B.S. Park, K.H. Kwak, and B.J. Park,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on their

- communication capabilities, majority satisfaction,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leadership,”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3, No. 1, pp. 44-49, March 2019.
- [21] A.K. Lee, H.S. You, and I.H. Park,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1, No. 1, pp. 154-163, Mar 2015.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5.21.2.154>
- [22] S.J. Hong, and E.H. Kim, “Effects of preceptorship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practice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0, pp. 6204-6214, Oct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10.6204>
- [23] B.J. Park, S.J. Park, and H.N.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the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7, pp. 220-227, June 2016. DOI: <http://doi.org/10.5762/KAIS.2016.17.7.220>
- [24] E.Y. Kim, and S.H. Yang,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nxie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1, No. 4, pp. 417-425. 2015.
- [25] S. Cohen, T. Karmarck, and R. Mermelstein, “A global measures of perceived stress,” *J Health Soc Behav*, Vol. 24 No. 4, pp. 385-396. 1983.
- [26] H. Park, and Y.S. Seo, “Validation of the Perceived Stress Scale (PSS) on Sample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psychology* Vol. 29. No. 3. pp. 611-629. 2010.
- [27] C.C. Manz,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ce in your life and work*,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 1983.
- [28] H.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teacher,”(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l University, Seoul, 2002.
- [29] R.B. Rubin, *Communication competence. Speech communication: Essays to commemorate the 75th anniversary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pp. 94-129. 1990.
- [30] K.H. Heo,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7, No. 6, pp. 380-408, Dec 2003.
- [31] J.L. Lee, and S.J. Kang, “The Effects of Stress and Spirituality on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7, No. 1, pp. 87-93. 2021.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21.27.1.87>
- [32] M.S. Chu, Y.R. Lee, and S.H. Kim, “Nursing Students’ Stress Level, Source and Coping,” *J Korean Acad Soc Home Care Nurs*, Vol. 19, No. 2, pp. 195-203, Dec 2012.
- [33] H.J. Won, and S.H. Cho, “A Review of Research on Self-leadership in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Vol. 19, No. 3, pp. 382-393. Jun 2013.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3.19.3.382>
- [34] C.S. Jung, “The effectiveness of self-leadership enhancing program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Daeg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2015.
- [35] J.E. Lee, and S.L. Kim,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1, No. 1, pp. 98-106, 2005.
- [36] O.S. Lee, and M.O. Gu,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6, pp. 2749-2759, 2013.
- [37] H.M. Kim, “The effect of the solution-focused communication training o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4. pp. 399-408. Dec. 2009.
- [38] G.Y. Ko, S.O. Park, S, J. Park, B.S. Park, K.H. Kwak, and B.J. Park,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on their Communication Capabilities, Majority Satisfaction,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Leadership,”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3, No. 1, pp. 41-49, Mar 2019.

- [39] C.S. Jung, "The effectiveness of self-leadership enhancing program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Daeg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2015.
- [40] S.Y. Yang,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of th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6, No. 9, pp. 286-296. 2016.
- [41] E.Y. Yeom,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Lab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7, No. 4, pp. 320-330. 2017.